

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경제부총리 모두발언(7.21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먼저,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정부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, 세제,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
 - 먼저, 재난·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복구비용을 지급하고,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, 임시주택 공급 등이 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,
 -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무신고·납부기한 연장, 재해손실공제,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·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습니다.

[❶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]

-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지원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 - 우선, 침수된 농작물,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,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 - 또한,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피해지역의 배수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, 피해 농작물과 농업시설의 철거와 재건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.
-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, 집중호우 피해가 밭상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① 우선, 상추 등 시설채소는 신속한 재파종을 지원하고, 이천·남원 등 다른 지역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, 깻잎 등 대체품목의 생산·출하도 확대하겠습니다.
- ② 닭고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할당관세 3만톤을 8월 내 전량 도입하고, 추가 도입절차에 착수해 단기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- 또한, 종란을 500만개 수입하고,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능력도 신속히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- ③ 아울러, 최근 가격이 불안한 상추·시금치·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때까지 최대 30% 할인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.

[②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]

- 다음은 「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정부는 「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」을 통해 물류·유통, 금융, 안전, 행정, 교육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디지털 신서비스를 창출하고,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.
- 화물차 주차장, 버스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, 국산 보리로 만든 수제맥주도 와인처럼 스마트오더를 통해 온라인 주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- 보다 많은 방한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도
자국 간편결제를 활용해 쇼핑하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
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 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,
-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
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서비스*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
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- * 금융상품 선별,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용까지 AI에게 맡기는 서비스
- 공장, 산업단지 등을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여
근로자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,
- 철도·항만 등에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
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- 한편,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
AI 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개 플랫폼인
AI허브 내에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하고,
- AI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, 자율주행차량 사고시 책임소재 등
AI 기술 활용에 따른 주요 쟁점은 선제적으로
점검·대응하겠습니다.

[③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]

☐ 다음은 「가명정보* 활용 확대방안」입니다.

*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
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

☐ 정부는 올해 3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개정하여
마이데이터* 도입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,
지난 6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

*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'개인정보 요구권'이 핵심

☐ 한발 더 나아가 산업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이
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세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,
전문인력 양성 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❶ 우선, 금년 말까지 자율주행차, CCTV 등에서 수집된 영상·음성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,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관련 기업의 AI 제품·서비스 개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- ❷ 또한,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2개소 추가 신설*하고, 2026년까지 가명정보 활용 전문인력 4천명을 양성하겠습니다.

* (현재) 서울·강원·부산 3개소 → ('23년 하반기) 인천·대전 2개소 신설

☐ 이어서, 안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 위원장님의 자세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
(개인정보위 위원장 모두발언)

☐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